

지자체 하반기 예산운용 준비상

빛내서 이자 막을판... 사업차질 불가피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조기집행을 사실상 강요하면서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악화일로다.

각종 공사·사업자금이 상반기에 일시에 풀리면서 지역 내 자금 순환이 원활해지는 장점은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낮고 세입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에서는 하반기에는 지방채나 일시차입 등 빚을 내야 할 판이다.

지방채 발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장기적으로 이들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특히 전남도의 경우 하반기 일부 국가 지원 지방도 개설 사업과 학교용지 부담금 지급,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마련,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보다는 사정이 나은 광주시 역시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게 돼 있어 이자를 물어야 하며, 재정 조기집행에 따라 이자소득도 줄어들 예정이다.

◇재정 조기집행 현황, 빚더미 지자체 = 올 상반기 경기부양을 위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조 원 정도를 더 투입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모두 160조8천억 원(본예산 156조1천억 원, 추가경정예산 4조7천억 원)을 집행, 지난해 상반기 집행금액 109조 원과 비교해 51조 8000억 원이 늘어났

교부세, 전남 690억·광주 385억 줄어

국세·지방세 재배분 등 획기적 대책 필요

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총 집행예정금액은 111조 9천억 원으로 상반기에 비해 대폭 줄어들게 돼 상반기 인위적인 경기부양이 실패할 경우 하반기에는 세수 감소 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재정 조기집행 과정에서 각 지자체들이 지방채를 일시차입하고 있으며, 지난해보다 교부세도 큰 폭으로 감소해 재정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부세는 전남도가 690억 원, 광주시가 385억 원이 각각 감소했으며, 이들 지자체는 모두 정부로부터 2.5%의 이자를 내고 이 금액을 융자받을 예정이다. 전남도는 또 부족한 재정을 지방채를 발행해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자체의 빚이 매년 늘어 2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 현재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잔액은 지난해 2007년에 비해 8천400억 원 정도 증가한 19조486억 원에 달했다. 특히 정부와 각 지자체는 올해 지방세수 감소

액을 보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 규모를 지난해보다 늘릴 예정이어서 올해 말 잔액은 20조 원을 크게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현재 광주는 8천236억 원, 전남은 7천228억 원이 지방채 잔액으로 남아있다.

◇대책은 없나 =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 감소분은 2조2천억 원이었으나 문제는 앞으로 교부세 등 지방 세입은 감소하고 지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방세입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25개 세입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로 인해 9조4천억 원 감소하고, 영유아보육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11개 지출 관련법안 통과에 따라 향후 5년 간 지자체 재정지출액은 오히려 4조8천억 원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경기침체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이 줄어 해당 세수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지방교부금이 향후 5년 간 6조6천억 원 감소하고, 아울러 소득

세법과 법인세법 등 세율인하에 따른 주민세 감소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취득·등록세 감소 등으로 전체 지방세가 향후 5년 간 2조8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달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5일 광주시를 방문, “내년에 재정의 축소편성이 불가피해 10% 정도 감축경영을 예상하고 있다”며 “지방세수도 감소하고 있어 여러 사업과 관련한 교부금도 감소해 재정이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전남도와 광주시의 경우도 이 같은 교부세 등 세입 감소를 대비한 계속 사업 및 신규사업의 재검토,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자체 세수 증대 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 역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세입 이전 등 획기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대 오재일 교수는 “근본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재배분이 이뤄져야 하며,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의 신설을 통해 지역의 세입을 늘여야 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교부금으로 조정하는 한편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해양 녹색성장 場 만들겠다”

강동석 신임 여수박람회조직위원장 취임

강동석(71) 전 건설교통부장관이 16일 2012여수세계박람회(이하 여수세박) 조직위원장에 취임(사진)했다.

2012여수세박 조직위는 이날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위원총회를 개최하고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강 전 장관을 새 조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강 신임 위원장은 전주 출신으로, 제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해양환경청장과 교통안전진흥공단 이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한국전력공사 사장, 건설교통부장관 등을 역임했다.

강 신임 위원장은 수락 인사를 통해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주요 국제행사인 여수세계박람회의 실행책임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수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참여와 성원을 바탕으로 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직위는 이날 장승우 전 조직위원장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이준희 전 주스웨덴 대사장을 정부대표로 선출했다. 이 대표는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 중요사항에 대해 교섭을 하거나 국제회의, 중요조약에 정부대표로 참여하게 된다

취임 후 기자회견을 가진 강 위원장은 “성공에 대한 확신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3년이 채 남지 않은 여수세계박람회를 치밀하게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수박람회는 국내적으로 국민화합과 자긍심을 높이고, 낙후한 국토 서남해안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국제적으로도 21세기 블루오션

(Blue Ocean)으로써 해양의 종합적인 가치가 본격적으로 실현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 위원장은 이와 함께 “여수세계박람회 관 세종홀에서 위원총회를 개최하고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강 전 장관을 새 조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그는 이어 “여수박람회는 개최지인 여수뿐만 아니라 남해안권 전체가 국토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부상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해양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여수박람회가 규모 면에서는 상하이 박람회보다 작지만, 내용 면에서는 이를 압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람회 준비와 관련 강 위원장은 “박람회장은 국정기조인 녹색성장의 구현과 사회활동 등을 철저히 고려하여 조성될 것”이라고 밝히고 “적극적인 참가유치활동을 통해 올해 안에 50개 중점 대상 국가를 유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위해선 남해안권 지역사회와의 협력력이 강화돼야 한다”며 “교통·숙박·관광 등 박람회장 바깥에서 이뤄지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역사회 간 상생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취임식 이후 곧바로 총괄 업무보고를 받은 강 위원장은 17일 박람회 개최지인 여수현지를 방문,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박람회장 준비상황과 교통상황 등을 점검한 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여수박람회 지원특별법 26일부터 시행

여수세계박람회 시설로 근거지를 잃은 주민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일 자리에 우선 고용된다. 또 박람회 직접시설 및 지원시설 사업이 조기 마감 수 있도록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박람회 직접시설 부지 조성 등으로 생활근거지를 잃은 주민에게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시행자는 철거 및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사업에는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 실시하도록 했다. /최권일기자 cki@



디자인비엔날레

D-100일

16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광장에서 열린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D-100일 기념행사’에 참여한 ‘코믹월드’ 회원들이 만화와 컴퓨터 게임 속 의상을 입고 열린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더할나위 없는-THE CLUE’를 주제로 오는 9월18일~11월5일까지 비엔날레 전시관 등지에서 열린다. /위지량기자 jrwi@

광주일보 추천 제주도 여행상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제주도
광주-제주 왕복항공료, 국내선비, 제주항공료 2박3일 = 299,000
제주 페키지 2박3일 = 379,000